

“청년 취업·지역경제 활성화 해결할 리더에 한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시민과 중소기업을 챙기고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능력있고 비전 있는 후보들을 선호했다. 유권자들이 말하는 표심을 들어봤다.

남녀 불평등 개선·성평등 실현 후보자 기대

염미봉 광주여성재단 대표

광주지역의 성 평등지수는 중·상 정도이지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지수는 높은 편이고, 남편의 가사 참여율은 낮다. 여성과 관련된 확고한 정책을 토대로 남·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기대한다. 게다가 광주에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다. 서울여성플라자와 같은 여성



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약을 바란다. 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남성육아 휴직 활성화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택됐으면 한다.

청년들 도전의식 갖고 꿈 펼칠 기회 마련해 줘야

박근성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으로서 후보들의 다른 어떤 공약보다 청년 취업정책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 문화 관련 기획가로 활동하고 싶지만 광주에는 취업을 위한 정보가 없다. 광주지역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이 필



요하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진로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시민을 대변하면서 좋은 공약을 내는 후보를 뽑을 것이다.

체육시설·장비 등 개선 해주는 인물 뽑고 싶어

김국영 男 100m 한국신 보유자

한국 남자 육상의 간판이자 한국 남자 100m 신기록 보유자인 김국영(27·광주시청)은 “광주의 체육발전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분이 광주시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육상이 비인기종목이다 보니 프로종목처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설과 장비 확보 및 훈련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는 인물을 뽑고 싶다”고 말하며 “육상을 비롯한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체육인들이 다른 시·도팀과의 경쟁에서도 기죽지 않고 실력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 마인드 갖춘 후보 선택 받았으면

김석문 광주시인협회장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광주가 과연 문화중심도시인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내건 후보자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로 추진해 문화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적 마인드를 갖춘 후보가 선택 받았으면 싶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광주문화관 건립을 위해서도 역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받게 해 줬으면

류제휘 금속노조 광주전남조직부장

촛불혁명 이후 처음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서주면 좋겠다.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교섭장구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꾸리지 못하면 사용자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여건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일꾼들이 등장하길 기대한다.

새로운 산업 개척할 능력 가진 사람 필요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

광주는 타도시에 비교해 문화적이고, 도시의 장소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공간, 패션, 맛, 교육, 문화와 예술 등에서 성장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우리 도시의 잠재력과 자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하고, 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비전을 갖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성장 시키기 위한 능력과 전략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여기에 창의적인 창업가를 발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있어 ‘임팩트 투자’와 ‘메니지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전략을 가진 리더에게 투표권을 던지겠다.

사회적 약자·어려운 이웃 귀 기울여 줄 사람 선택

나현주 북구 장애인재활센터장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특정 정당 후보가 아닌 일 잘 할 수 있는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문제나 현상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줄 아는 후보가 지역 일꾼이 됐으면 한다. 특정 정당 후보가 아닌 일 잘 할 수 있는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보여주기식 보다 국민 위한 공약 절실

박수연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정치를 잘 모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도, 돈도, 개인의 능력도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국민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공약이 더 필요하다. 또 국민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진심



으로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위해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 성장만이 아닌 복지를 더 중시하는 사람, 급한 불만 끄려 하지 않고 불이 난 원인을 알아내려는 사람, 돈과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보다 국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부동산 투기 막을 대책 가진 인물 선출할 것

김진아 1913송정역시장 상인

전통시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한 지 2년. 눈길 한 번 주지않던 시민들의 발걸음이 시장으로 옮겨지고, 파리만 쫓던 어르신분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오고 있다.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정터를 지켜온 이들의 일생이 녹아 있는 삶의 터전이자, 청년상인에게는 ‘동지’ 같은 곳이다.



우리 삶의 터전을, 동지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수익을 쫓는 이들에게 등을 떠밀려 조용히 터전을 뺏기는 상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됐으면 한다.

병역·사기·음주운전 등 전과 가진 사람은 안돼

김동현 광주경찰서 사무처장

도덕성과 자질은 기본이다. 첫째 전과 기록과 병역사항, 체납증명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기, 횡령,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전과전력을 가진 사람, 국민의 의무인 병역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후보들은 주민을 대표해서도 안되지만 입후보 하는 것도 정당이 공천을 주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40%가 범죄전과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후보자의 전문성이 반영된 공약과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살펴보고야 하며, 무엇보다도 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의 확보 문제이다. 지금도, 시장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장밋빛 공약을 앞세우지만 실제 광주시 예산여건을 보면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택시기사들 복지향상 관심 가져 주는 후보

김선기 택시기사

여러 계층 승객을 만나다보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똑같이 한다. 택시기사들 또한 한살이 힘들다. 차기 시장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개인택시는 그나마 괜찮지만 영업용 택시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회사에 사납금을 내면 한달에 최저시급과 비슷한 돈을 손에 넣을 때도 있다.



사납금 부담을 줄여 택시기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에게 영업 피해가 없어야 한다. 또 휴식공간 마련 등 택시기사들의 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유망 중기 애로 들어줄 사람이 리더돼야

김정현 탐환경건설 대표

광주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고용을 창출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나서는 성실한 기업들이 분명 존재한다. 지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이런 성실하고 건실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기업이 타지역으



로 유출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말뿐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선출됐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전기가 뚜뚜뚜해집니다 쿠쿠쿠해집니다

한전KDN의 ICT기술력으로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해집니다

전력과 ICT의 만남으로 에너지ICT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세상의 리더 한전KDN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에서 송변전, 배전, 판매까지 전력계통은 물론, 혁신과 상생으로 미래에너지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